

북한이탈여성들의 삶 이야기 : 해석학적 현상학을 통한 중국생활체험 분석

North Korean Female Defectors' Voices:
Hermeneutical Phenomenological Analysis of the Lived Experiences in China

성신여자대학교 가족문화·소비자학과
교수 김태현
이화여자대학교 인간생활환경연구소
연구원 노치영

Dept. of Family Culture & Consumer Science, Sungshin Women's University
Professor : Taehyun Kim
Human Ecology Research Institute, Ewha Womans University
Researcher : Chi-young Noh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방법론 및 연구방법 |
| II. 재중 북한이탈여성들의 삶을
이해하기 위한 맥락들 | V. 연구결과 |
| III. 북한이탈여성의 중국생활에
대한 연구고찰 및 한계점 | VI. 결론 및 반성적 제언
참고문헌 |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North Korean female defectors' experiences in China. 13 female defectors were interviewed. Before they extricated from North Korea, they expected to make money to survive with their family in North Korea. But it couldn't be done because they didn't have legal status in China.

They were at the risk of exposing to traffickers in females and of repatriation to North Korea. Surviving in China, they realized they were "Chosun(North Korean) females" ; it meant they were in extremely poor and were sold by traffickers. It made them put to shame and be hurt their pride as a Chosun national identity. On

Corresponding Author: Taehyun Kim, Department of Family Culture & Consumer Science, Sungshin Women's University, 249-1 Dongsun-dong 3-ga, Sungbuk-gu, Seoul 136-742, Korea Tel: 82-2-920-7207 Fax: 82-2-928-9747 E-mail: thkim@sungshin.ac.kr

the other hand, they realized they had narrow experiences and a limited outlook on international issues. They made themselves accustomed to freedom from the Chinese Revolution ; some of them experienced achievement. In general, they were satisfied with physical needs, but lacks of safety and worth in life. Even though, they couldn't return to North Korea because they were afraid of being punished by their government, and of striking their family a fatal blow in their successful lives of the society.

주제어(Key Words): 북한이탈여성(North Korean female defectors), 중국에서의 삶(lives in China), 생활 체험(lived experiences)

I. 서론

최근에 한국으로 유입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급증하고 있다. 1995년에 41명의 북한이탈주민들이 국내로 입국하였던 것이 1998년에는 71명, 1999년에는 148명, 2000년에는 312명, 2001년에는 538명, 그리고 2002년 현재 771명에 이르고 있으며, 그들은 사회문화 및 경제, 정치, 이념적 차이에 따른 전반적 부적응 및 대인관계 문제들을 보고하고 있다(연합뉴스, 2002; 박철학, 2001; 김영수, 2000; 이우영, 2000; 전우택, 2000; 윤인진, 2000, 1999; 장혜경, 김영란, 2000). 이러한 가운데 국내 입국자들의 수요만 계속 급증해간다면, 우리는 북한이탈자에 대한 우리의 수용한계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우리는 국내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사회에 통합될 수 있는 적응방안들을 모색하되, 이와 더불어 그들이 왜 국내입국을 시도하는지에 대해서 보다 더 심층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국외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국외 북한이탈주민들은 그들 조국이 탈북을 범법행위로 취급하기 때문에 조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현지 체류국에서 어느 누구의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불법체류자로 간주되어 국제적 미아로 방치되어 살고 있다. 특히 대규모 인원이 존재하는 중국 내 북한이탈주민들, 그 중에서도 남성보다 3배나 더 많은 여성들은 인권유린의 현장에 있기 때문에 북한이탈 여성에 대한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중국 내 체류하는 북한이탈여성의 50% 이상이 결혼한 상태로(좋은 벚들, 1999), 기혼 북한이탈여성들은 남편으로부터 보살핌을 받고 있는 등 비교적

안정된 결혼 관계를 유지하기도 하지만 생활상에서는 남편 및 시댁식구들과의 관계의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자녀와 관련된 문제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문숙재, 김지희, 1999). 공식적으로 보고된 통계치는 없지만 기혼 여성들 중에는 인신매매로 매매되어 강제 결혼한 여성들도 많고, 중국의 불법체류자에 대한 무차별적 단속으로 인해 임신부나 아기를 둔 여성들도 단속을 피해 숨어 살으로써 불안이 연속되는 생활을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여성들이 중국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사회체계가 그들의 존재적 의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해를 도모함으로써 북한이탈여성들의 중국에서의 삶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인식의 전환을 가져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북한이탈여성들의 목소리로 전해지는 생활 체험(lived experiences)들을 수집, 분석하고자 한다.

II. 재중 북한이탈여성들의 삶을 이해하기 위한 맥락들

북한이탈여성들이 중국으로 대량탈북하게 된 배경은 북한식 사회주의 경제의 위기로부터 출발한다. 중국으로 탈북한 북한이탈여성들의 삶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사회, 문화,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배경을 형성하는 절대적 이념이자 실천적 적용이 '주체사상'과 '은건적 가부장제'이다. 또한 대외적 배경으로는 탈북에 대한 주변국의 관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1. '주체사상'과 '온정적 가부장제'의 영향

'주체사상'은 북한사회 건립 초기에 김일성에 의해 제시되어 그 구도를 잡은 것으로 건국초기부터 구소련의 외간섭을 차단하기 위하여 차별화시킨 북한정권 통치 이데올로기이다.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인 「혁명적 수령론」은 수령의 영도를 받는 인민만이 사회역사의 주체가 된다고 주장하며,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서는 수령의 정치적 생명체를 받지 못하는 인민은 두뇌 없는 팔다리처럼 사회적으로 죽은 목숨과 같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또한 「사회주의 대가정론」에서는 모든 인민은 수령의 정신과 돌봄을 받아야 하고 이를 당이 통제한다는 지도원칙을 내세워서 인민의 정치사상적 개조부터 실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주체사상은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유일체제를 정당화하고, 인민의 수령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성을 요구할 뿐 아니라, 정치화를 선행하기 위하여 당의 통제에 구속됨으로써 관료주의를 유발하게 되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주체사상을 기초로 하여 자립갱생과 수령의 오류없는 철저한 계획에 따른 경제실천을 고집함으로써 경제파탄을 가져오게 되었다. 따라서 주체사상은 대내적으로는 독재세습체제를 정당화하고, 대외적으로는 폐쇄체제를 합리화하는 사상적, 실천적 수단으로 오늘날 북한사회를 고립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주체사상을 정당화시키는 '온정적 가부장제(paternal patriarchy)'는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등의 국가수준 뿐 아니라 사적 가부장제로까지 확산되어 가정이 이념적으로 혁명화되도록 하였다. 가정은 국가의 보호장치 속에서 사회적 재생산을 도모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이를 위하여 국가는 식량배급과 임금보장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정책과 무상교육, 무상의료정책 등을 실시하였다. 또한 가정을 통한 경제적 부양의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북한은 가족우선성을 실현하였다. 가족우선성을 강화하는 것은 가족주의를 활성화하게 되었고 출신성분에 따른 귀속 지위를 재생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가족주의 활성화는 북한의 권력체제를 안정화시키는 전략이라 할 수 있다.

가정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가족을 유지하고 지키는 책임은 여성이 담당하도록 하였다. 북한사회가 요구하는 여성의 주된 역할은 '가정혁명화'를 통해 사회일원을 배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 자신이 혁명화된 어머니이자 아내이자 노동자로서 본이 되어 적극적으로 혁명화 완수를 지원하는 역할과 가부장적 질서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북한의 여성들은 사회가 지향하는 대로 혁명적 노동자로서, 공산주의적 자녀를 양육하며 현모양처가 되는 상반된 책임을 맡기 때문에 역할갈등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중적 정체성을 아무 갈등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이미 '온정적 가부장제' 의식이 북한식 사회주의 의식으로 내재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박현선, 1999).

2. 북한이탈자에 대한 관점

대부분이 북한이탈자에게 난민으로 규정하는데 이견이 없지만, 중국 등의 해당 체류국에서는 불법 체류자로 간주하여 처리하기 때문에 인권보호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북한이탈자를 난민으로 규정하는 관점에서는 그 근거를 무엇보다도 북한이 대내외적으로 고립되면서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에 의거한 식량배급이 중단되어 주민들의 기본적 생존권이 박탈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존위기에서 '살기 위하여' 탈북하는 생존형 탈북은 2001년 이후부터 현격하게 나타나고 있는 보다 나은 생활조건을 갖추려고 탈북하는 경제적 이주와 혼재되고는 있지만, 두 유형의 탈북 모두 자연재해로 인한 일시적인 식량난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북한 사회구조적 모순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에서는 북한이탈자에 대하여 '조국의 배신자' '범법자' 등으로 규정하고 정치적 범죄자로 처리하여 그와 그의 가족까지도 생존적 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난민판정 기준에 의거한 충분한 법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김태천, 2002; 곽해룡, 2000; 윤여상, 1998; 이신화, 1997). 뿐만 아니라, 북한은 북한이탈자 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체류국과 연합하여 강제송환을

단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치는 북한이탈자들이 현지국에서 생존의 위협과 인권침해에 노출되는 원인을 제공한다. 특히 1998년 이후로는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장기 체류자들의 수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인권침해의 실상은 더욱 커지고 있다(윤여상, 1998). 이미 잘 알려진 바대로,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은 중국 공안의 눈을 피하여 숨어 살거나 신분을 가장하고 도시의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며 신분이 발각될 경우 안전한 곳을 찾아 돌아다니며 살기 때문에 긴장감과 공포가 일상화 되어 있다.

그러나 난민협약상 그들을 난민으로 판정하는데 결정권을 갖고 있는 곳은 해당 체류국이다. 북한이탈자들의 해당 체류국으로서 중국은 이미 1982년에 국제사회에서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를 체결한 국가이다. 동시에 중국은 북한과 이념상 우호적 동맹관계를 형성하여 1960년대에 '밀입국 범죄자 상호 인도협정'과 1980년대에 '국경지역 관리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국제사회와 북한에 대하여 서로 상반된 조약을 맺은 중국은 북한이탈자 문제처리에 대하여 딜레마에 놓여 있지만 이를 실리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중국의 기본입장은 그들에 대하여 불법체류자로 규정하고 북한정부가 요구하고 중국 내 치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마다 그들을 체포하여 강제송환하는 것이다. 이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1997년 중국은 '국경관리 방해죄'라는 새 형법을 신설하여 북한이탈자에게 은신처를 제공하는 등 그들을 돕는 자국인에 대하여 무거운 벌금과 실형, 그리고 외국인에 대해서도 벌금과 실형, 해외추방을 선고할 수 있도록 강경책을 펼치고 있다. 이는 대량탈북으로 인한 중국의 경제적 비용의 손실을 줄이고자 하는 의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혁명 1세대가 맺은 형제적 동맹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북한의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를 높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한반도에서의 중국의 영향력을 지속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1997). 반면, 중국은 북한이탈자들이 중국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눈감아 주기도 한다. 시장개방화와 해외노동수출로 중국사회에서는 여성들이 도시와 외국으로 직

장을 찾아 이주함에 따라 농촌의 남녀성비의 불균형이 커지고 있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결혼문제를 북한이탈여성들이 해소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공안은 북한이탈여성들에 대해서 관대하게 처우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보다 우선적으로 중국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티벳과 같은 소수민족 문제로 주목받는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이탈자 처우문제가 제기되어 국익을 해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러한 중국의 딜레마는 최근 북경 대사관을 통한 탈북사태에서 드러난다. 중국은 탈북문제가 국의 뉴스를 통해 국제사회문제로 대두되자, 북한이탈자들을 자국에서 처리하지 않고 제 3국을 경유하여 서울로 가도록 넘기는 한편 중국 내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자들을 대량으로 체포해 북한으로 강제송환하는 우회적인 강경책을 사용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북한이탈자들은 중국에서 식량을 해결하며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지만 중국의 일관된 난민 인정불가 방침으로 인해 그들의 인권문제는 계속되고 있다.

한편, 한국의 북한이탈자에 대한 태도는 중국 이상으로 딜레마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 국내법상 같은 영토의 국적국으로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호할 의무와 권리를 갖고 있지만, 국제법상으로는 남북한이 모두 UN 가입국이므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가적 보호권을 요구할 수 없다. 더구나 중국이 남북한 동시 수교국으로서 양국을 분명하게 분리해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정부차원에서 중국에 북한이탈자에 대한 보호를 요청할 수 없는 입장이며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HCR)에 난민지위를 청원하는 것 역시 국제관례상 불가능하다.

이와 같이 북한이탈자 문제는 국가의 생존권 침해로 인한 탈출에서 발생한 난민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해당국과 체류국에서 범죄자로 규정하여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난민규정에 대한 협의의 해석과 관련국들의 정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북한이탈자 문제를 회피하고 정치적 이해관계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이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III. 북한이탈여성의 중국생활에 대한 연구고찰 및 한계점

중국 내 북한이탈자에 대한 연구와 보고들은 그들의 생활실태를 고발함으로써 인권문제를 제기하여 탈북문제를 국제문제화 하는 것들이다(김태진, 2002; 이우영, 2000; 좋은벗들, 2000; 문숙재 외, 1999; 이신화, 1997; 이영선, 전우택, 1997; Yoon, 2000). 이들 연구와 보고들은 북한주민들이 중국으로 탈북하게 된 동기, 탈북규모 및 유형, 탈북방법과 경로, 탈북추세, 그리고 생활실태를 보고하고 있다.

보고 된 바에 따르면, 중국 내 여성 탈북자가 75.5%인데 반해서 남성 탈북자는 25.5%로 여성탈북 인구가 남성보다 무려 3배나 더 많다(좋은벗들, 1999). 여성 탈북 비율이 높은 이유는 북한사회 및 중국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부응하는 일면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북한의 사회주의 이념과 제도에 내재화 된 여성들의 가족을 살려야 한다는 헌신적 의식이 탈북을 강행하게 한 것으로 보아진다(박현선, 1999).

북한이탈자들의 중국 내 생활은 불안정하고 인권 유린을 당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좋은벗들, 2000, 1999; 윤여상, 1998; 문숙재 외, 1999; Yoon, 2000). 중국내 북한이탈여성에 대한 유일한 연구인 문숙재 외(1999)의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여성들이 비교적 중국 남편으로부터 보살핌을 받고 북한 남자들에 비해서 여자를 많이 존중해줌으로써 안정된 결혼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가정생활에서는 남편이 그들을 무시하는 것, 남편의 음주문제 및 구타문제, 경제적 어려움, 북한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그리움, 자녀교육문제 등을 어려움으로 지적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불법체류자라는 신분 때문에 남편에 전적으로 의존해야만 하는 것과 남편이 자신을 버릴까봐 불안하다는 심리적 적응기제를 보여주고 있으며 호구해결을 희망하고 있는 점에서, 다른 연구나 보고들이 밝히는 인권고발 실태보다 한층 심도 있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몇 가지 제한점을 갖고 있다. 첫째, 북한이탈여성들의 중국에서의 생활을 기술적 차원에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중국

에서의 삶에 대한 관점과 태도가 밝혀지지 않고 있다. 둘째, 북한이탈여성고 그들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사회체제와의 상호작용 과정에 대하여 연구되지 않았다. 셋째, 기존 연구들이 중국에서 사는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정서에 대하여 밝히고 있지만, 살아가기 위하여 그것들을 극복하는 전략들이 무엇이며 어떻게 행사하는지에 대하여 연구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기존 연구들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질적 연구를 통하여 중국 내 북한이탈여성들의 살아있는 경험들을 수집할 필요가 있다.

IV. 연구방법론 및 연구방법

우리는 북한이탈여성들의 삶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내재적이고 총체적인 접근의 자세를 갖고자 하였다. 내재적이고 총체적인 접근을 위하여 재중 북한이탈여성들의 목소리로 이야기 되어지는 그들의 삶에 대하여 그들이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지를 아무 선입관이나 편견 없이 이해하고자 하였으며,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그 삶을 둘러싼 사회적 맥락을 해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해석학적 현상학의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1. 해석학적 현상학(Hermeneutic Phenomenology)의 적용

해석학적 현상학(Hermeneutic Phenomenology)은 인간의 일상적 생활세계(life world)에서의 주관적 경험을 탐구하고자 하는 질적 연구의 한 부류로서, 일상생활 세계에서 사람들의 생활체험(lived experiences)과 그들이 부여하는 의미를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는 북한이탈여성들의 생활체험을 통해서 그들의 존재가 세상에 부여하는 의미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그들의 생활체험을 이해하기 위한 첫단계로서 우리는 자신의 개별적 체험에서부터 시작하였다(Van Manen, 1997). 우리는 북한이탈여성들의 생활체험의 줄거리를 이해하려고 하였을 뿐 아니라, 각 여성의 체험이 어디서부터 시작하였

는지, 체험의 중요한 부분과 중요치 않은 부분은 무엇인지, 체험의 중요한 부분에 부여하는 의미는 무엇인지 등의 현상학적 질문들과 그에 대한 답변들을 계속하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북한이탈여성들의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북한이탈여성들의 생활체험을 이해하는 것이 북한이탈여성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여성 및 가족학자, 통일 정책이나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전문가들과 그 외의 통일을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북한이탈여성들 자신에게 그 가치가 있으리라 생각하였다.

Van Manen(1997)의 제안에 따라, 우리는 북한이탈여성들의 생활체험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하여, 1) 연구자 자신의 체험을 기술하기, 2) 관찰과 인터뷰(심층면접), 3)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관련 학술연구, 편지, 신문기사, 보도물 등을 읽고 다큐멘터리 영상물 관람하였고 정보자와의 대화 등의 방법을 적용하였다.

1) 연구자 자신의 체험 기술

우리는 중국에서의 개인적 체험들을 회고해보았다. 우리는 한국인으로 한국에서 성장한 후 연구를 위하여 중국에 오게 되었고, 중국에 체류하는 것에 대한 기대나 어려움 등을 기술해 보았다. 또한 북한이탈여성들을 만나면서 갖게 되는 태도, 관찰한 것, 편견 등도 기록하였다. 북한이탈여성들에 대한 편견은 한국에서의 반공교육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들에 대한 두려움과 경계심을 갖고 있었다. 중국에 와서 만난 북한이탈주민들을 관찰한 것도 그들에 대한 편견을 더해 주었다. 그들은 불쌍하였고, 체면을 유지하고 있었고, 자신의 욕구나 느낌을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고, 무언가를 필요로 할 때 우회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우리가 13명의 북한이탈여성들을 만나는 과정은 마치 첩보영화를 찍는 것 같았다. 중국에서 접촉이 허용되지 않는 북한이탈주민들을 만나는 것은 대단히 조심스러웠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과 우리가 만나는 북한이탈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몇 가지

전략들을 사용하였다. 우리는 전화도청을 조심하여 주로 추적이 어려운 외부 공간의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그들에게 연락을 하였다. 그들과 만나는 시간은 때때로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밤을 이용하였고, 그들의 집이나 안전한 제 3의 장소에서 만났다. 그들을 만나러 갈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눈에 외국인으로 보이지 않도록 의상 등에 신경을 썼다. 또한 그들을 만나러 가거나 돌아올 때는 누군가 우리를 쳐다보는 사람이 없는지를 주변을 둘러보며 항상 확인해야 했다. 한 여성의 집을 방문했을 때는 밖에서 자물쇠로 문을 잠가 마치 집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가장하였고, 누군가 문을 두드릴 때는 우리 자신도 놀래서 긴장하는 경험을 하였다.

그들과의 만남은 처음에는 다소 경직되었다. 북한이탈여성들도 우리와의 첫 만남에 대해서 긴장하는 것으로 보였다. 우리의 방문에 대해서 예민하게 궁금해 하였고 경계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예의를 갖추어 앉아 묻는 질문에만 대답을 짧게 하거나, 불필요한 반복어를 많이 사용하거나, 말이 늘어지는 여성들도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만남의 횟수가 많아짐에 따라 그들을 편하게 대할 수 있었고 그들의 생활세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서 그에 대한 편견을 줄일 수 있었다. 그들이 더 이상 불쌍하거나 무섭게 느껴지지 않았고 그들의 세계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는 그들의 생활체험을 통해서 체제가 개인의 삶의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그들도 만남의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밝게 웃고 있었고, 어떤 여성은 "한번도 이런 얘기를 한 적 없습니다. ... 솔직히 선생님께만 말씀드립니다...". 선생님을 언니라고 생각하여(울음)"라는 말을 하며 자신의 경험들을 이야기하였다. 어떤 여성들은 이야기 중에 울기도 하였고, 또 다른 어떤 여성들은 이 연구에 등장하는 다른 여성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2) 관찰과 인터뷰(심층면접)

우리는 "한 사람의 일상세계에 들어가는 가장 좋

은 방법은 그 세계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Van Manen(1997)의 말에 따라 북한이탈여성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자 하였다. 1:1 인터뷰 외에 한 정보자를 따라 북한이탈여성들의 비공식적 모임에 관찰자이자 참여자로서 참여하기도 하였다. 우리는 인터뷰와 모임에서 관찰한 부분들이 서로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였고,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터뷰를 통해 물었다.

인터뷰는 우리가 그들과 서로 관계하는 것을 배우는 기회로 갖춰갔다. 우리 사이의 차이는 삶에 주어진 기회들의 차이로써 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들이 가치를 두는 것들을 존중하여 듣고자 하였다. 예를 들면,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북한 용어들을 들었을 때 곧 그들에게 무슨 뜻인지를 물었고 그들 용어대로 사용하였다. 인터뷰 중 우리의 중국에서의 체험들을 나누기도 하였다. 그들 문화를 존중하며 듣는 인터뷰 법은 질적 연구의 핵심인 그들과의 친밀한 관계(rapport)와 신뢰를 쌓는데 필수적인 기술이었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술은 사적인 대화에 익숙치 않은 그들이 솔직하고 편안하게, 그리고 풍부한 자신의 경험을 나눌 수 있게 하기 때문이었다(박현선, 1999). 또한 친밀한 관계와 신뢰를 쌓는 것은 북한이탈여성들에게 우리가 밀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시키는데 필수적이었다.

3) 학술연구, 편지, 신문기사, 및 영상물 경험, 정보자와의 대화

우리는 한 정보자로부터 북한이탈여성들이 그들을 돕는 지원자에게 보낸 감사편지를 빌려 읽어볼 기회가 있었다. 또한 북한이탈자 연구들, 신문보도 및 민간단체들의 실태보고, 그리고 방송을 통한 재중 북한이탈자들의 생활실태를 보여준 영상물들은 북한이탈여성들의 경험과 상황적 맥락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자들을 돕고 있는 관계자들과의 대화는 북한이탈여성들이 중국으로 탈북하던 시기부터 최근 동향까지의 변화추이를 포함하여 우리가 그들의 삶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간접적 체험들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자료들은 본 연구에서 채득한 체험들을 구성하여 반성할 때

해석학적 시도로 사용하였다.

2. 연구절차

1) 13인의 재중 북한이탈여성들

우리는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총 13명의 20~30대 북한이탈여성들을 만날 수 있었다. 13명의 여성들의 탈북시기는 대부분이 1997~1999년 이어서 중국 체류기간은 3~5년 정도이었지만, 1명의 여성은 1년 미만이었다. 그 1명을 제외한 12명의 여성들이 중국에 와서 결혼을 하였고, 이중 10명은 중국 현지인과, 2명은 같은 처지의 북한이탈남성과 결혼하였다. 결혼하지 않은 1명의 이혼여성은 탈북한지 1년이 채 안되어 아직까지 중국에서의 결혼을 원치 않았다. 그들의 교육수준은 중,고등학교 졸업자들이 많았지만, 그중 4명은 대학을 졸업한 인텔리층이었다.

2) 인터뷰(심층면접) 절차

우리는 2001년 3월부터 2002년 5월까지 중국 내 북한이탈여성들 13명을 1회에서 최대 4회까지 만나 인터뷰(심층면접)를 하였다. 1회만 만난 여성들은 3명 있었는데, 첫 번째 인터뷰 후 북한이탈자에 대한 단속이 심해져서 혹은 남편을 떠나려고 도망 나왔다가 다시 남편에게로 되돌아가서 다른 지역들로 흩어졌기 때문이다. 그들과의 만남은 주로 1:1로 이루어졌다. 면접시간은 1시간 30분에서 최고 6시간까지 걸렸다.

그들과의 인터뷰 내용은 모두 녹음되었는데, 그들은 녹음에 대하여 대단히 꺼려하는 편이었지만 이를 지속적인 친밀한 관계형성(rapport)을 통해서 극복해갔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그들이 여성으로서 필요로 할 것들(예: 여성용 위생용품, 의류, 세제, 아기용품 등) 및 수단적 지원(예: 병원알선 및 병원비에 대한 재정적 보탬, 약 제공, 학습교재 제공 등)을 주었다. 개별 여성들에게는 인터뷰를 마치면서 중국농촌에서 한 달을 살 수 있는 정도의 금전적 사례를 하였다. 한편 도움을 받은 여성들은 감사의 표현으로 농사 지은 옥수수를 갖다 주기도 하였다. 이것이 우리가 서로 관계하는 방법이었으며, 우리가

그들과 인터뷰를 수행하는 방법이었다. 이와 같은 관계는 서로에 대해 좀더 개방할 수 있는 대화거리를 만들 수 있었고 친밀감을 형성하는 기회가 되어, 그들이 중국이라는 새로운 세계에서 무엇을 경험하는지를 알 수 있는 기회로 넓혀갔다. 본 연구에서의 연구질문들은 구체적인 몇가지를 구성하였지만 주로 대화식으로 이루어졌고, 그들의 응답에 근거해서 질문과 대화를 계속하였다.

3) 주제분석

13명의 북한이탈여성들의 생활체험은 반성적 과제로서 텍스트를 만들었다(Van Manen, 1997). 텍스트를 만들기 위하여 13명의 북한이탈여성들과의 인터뷰를 녹음한 것과 메모를 전부 그대로 녹취하였다. 우리는 “중국내 북한이탈여성들의 삶의 의미”를 스스로에게 물으며 13개의 텍스트를 계속해서 읽어가며 텍스트와의 대화를 진행하였다. 텍스트를 읽으면서 의미단위와 경험들을 구조화하여 주제를 찾아갔다. 우리는 13개의 텍스트에서 보여주는 의미단위와 경험들에서 가장 공통적인 것들을 구조화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되어진 주제들은 13명의 여성들의 정확한 경험을 표현하고 있는지를 그들로부터 확인하여 주제에 대한 타당성을 얻었다.

4) 부분과 전체의 균형 유지하기

우리는 주어진 맥락에서 각 부분이 전체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뒤로 물러서서 전체를 바라봄으로써” 부분과 전체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Van Manen, 1997). 이를 위하여 우리는 작성된 녹취문을 계속 읽고, 테이프를 듣고, 텍스트 메모를 읽음으로써 전체 흐름에서 초점을 잃지 않는데 도움이 되었다.

V. 연구결과

1. 목표달성의 난감함

북한은 주민들에게 자국을 지상 최고의 사회주의

국가로 세뇌시키기 때문에, 우호적 관계에 있는 중국에 대해서도 시장경제노선을 일부 도입했다는 이유로 변질된 사회주의 국가라며 비방한다. 철저한 폐쇄사회 속에서 이러한 교육을 받은 주민들은 일반적으로 중국에 대하여 적대적 감정과 경계심을 가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체제에서 기아로 허덕였던 북한주민들은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중국 얘기를 듣게 되며 중국으로 오는 것이 그들의 긴장감 넘치는 한가닥의 희망이다.

우리가 만난 여성들은 개인적 특명을 받은 여성(#6)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발적으로 탈북하였다. 특명을 받은 이 여성과 애인을 따라온 여성들(#3, #12)을 제외한 나머지는 식량난 때문에 탈북하였다. 그들은 주위의 이웃이나 친척, 혹은 장사하며 오다가다 만난 중국 사람들로부터 중국에 가서 몇 달만 일하면 돈을 쉽게 번다는 말을 듣고 중국행을 결심하였다. 그들은 어느 정도 일정액의 돈을 벌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 가족을 부양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현실은 그들의 기대와 달라져 그들만의 중국 현실이 별개로 있었다. 그들은 중국 조선족 집거지역으로 탈북하면 말이 통하리라 생각하였으나 중국에서는 한어뿐 아니라 중국 조선족의 말투와 방언을 습득해야 하는 언어적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언어차이로 그들이 밖에 나가면 쉽게 신분이 노출되어 신고될 수 있고 신고되면 복송되기 때문에 그들이 기대한 대로 돈을 쉽게 벌 수 없는 것이 그들의 현실이다. 그들은 북한에서는 열심히 일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했을 뿐 이러한 어려움을 예상하지 못했다.

“돈이래두 좀 벌까 했는데 한쪽 말이 한나 모르지. 그 다음번에 또 이게 북조선 우리말이하구 여기 말이하구 판 다르니까나. 어디에 가나 이렇게 돈벌이래두 하자문이 북조선 말이 할(확) 알리니까나. 이게 조선 안까지(아줌마)구나 하는 거 여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알게 된단 말임다. 그리까나 어디 가서 뭐 이렇게 돈 벌기 못 댘지 뭐. 구비 되지 못해서. 그렇게 그기에 있을 때 생각과 다르더라 말이. 떠날 때 생각과.”(#9)

그들은 생각지 못한 어려움들로 돈벌이도 제대로

못하고 불안하기만 하기 때문에 괜히 중국으로 왔다는 후회감에 사로잡히곤 한다.

2. 노출됨의 위험성

중국은 북한이탈자에 대하여 밀입국자로 간주하여 강제소환함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북한이탈자들은 중국에서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그들을 위협하는 첫 번째 부류는 인신매매단이다. 인신매매단은 북한이탈여성들이 도강하는 강변에서부터 그들이 대다수 살고 있는 전역에 포위해 있다가 그들을 붙잡아 가곤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에 와서 알게 된 사람들이 인신매매단에 알선하여 그들을 팔아넘기기도 한다. 인신매매단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들을 데려다가 매춘을 알선하거나, 중국 전역의 농촌이나 외딴 지역에 결혼 못한 농촌총각이나 홀아비들에게 매매혼으로 거래한다. 이때 매매가는 여성의 연령, 결혼여부, 외모 등과 여성을 사겠다는 사람의 경제수준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한다. 인신매매단은 북한이탈여성들이 결혼하여 남편이 있을지라도 관계치 않고 그들을 알선하기도 한다.

“단꺼번에 한 무리가 닥쳐 들어와서 남편이고 그집 식구들이고 몽땅 이케 붙잡아 놓는다 말입니다. 대개 손에 칼 들고 들어와서 딱 붙잡고 이케 세워 놓는다 말입니다. 그래 보는 데서 자기 쳐와 뺏겨가도 나서지 못한다 말입니다.”(#6)

두 번째 위협대상은 불법체류자에 대한 신고이다. 최근 들어 중국은 국제사회에서의 중국의 위신과 북한과의 전통적 우애관계의 균형을 깨뜨리지 않기 위하여 이중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불법체류자에는 예외가 없어서, 중국 남자와 결혼하여 아기까지 낳아 살고 있는 여성들, 심지어는 호구문제를 해결한 여성들조차도 신고되면 붙잡히는 실정이다.

“(신고되어 남편과 함께 붙잡혔다가 혼자 시집 삼촌 집으로 도망쳐옴) 그 나그네(남편) 삼촌집에서 토론하는기 ‘아이 되겠다면서 이제 안전치 못해서 아 있어두 아이 되겠다면서리 이제는 보내야 되겠다구 나를, 가구 싶은대로 가라며 보내야겠다.’ 이런

투로 이렇게 글더란 말이. 그래 거기서 나는 ‘그럼 가겠다구서리.’ ‘아(아기) 근심이는 말라구서리. 아는 기르겠다면서리’ 그럼 글더란 말이. ... 그래서 날 돈으 양백원(200원)!) 주드란 말이.”(#9)

특히 2001년도부터 중국 전역에서 대대적으로 ‘불법자 단속(嚴打)’이 시작되면서 더욱 삼엄해져서 북한이탈자들은 보다 안전한 곳을 찾아 도망을 가야 하므로 생활의 안정을 찾을 수 없다. 불법신분으로 신고되어 복송되기 때문에 그들은 중국인과의 관계에서 억울해도 한마디 요구나 항의를 하지 못하는 삶을 살 수 밖에 없다. 가령 일을 해도 돈을 거의 받지 못하거나 중국인 임금의 1/10 수준으로 받는 등 중국인에게 이용당하는 적이 많다고 한다.

“(식당에 일을 하러 가서) 그러니까 일단 말은 했죠. 조선사람이리구. 그래 쓰겠다 했죠. 근데 한 달이 되구 두 달이 되구 돈을 델라구 가겠다구. 돈을 안준다. 돈을 안 주니까 어떻게 돈을 달라구 말을 못하죠. 제 신분이 여기 신분이 아니구 다른 민족 신분이니 혹시 이 사람이 나를 공안에 가서 이렇게 말하면(신고하면) 거저 잡혀가는 것이니까 말을 못하죠. ... 한 2년을 돈을 못 받구. 때때로는 (한 달에) 50원, 60원씩(한국돈 10,000원 정도) 주죠.”(#5)

세 번째로 그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상은 그들과 같은 북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같은 처지의 북한이탈자들과 자주 접촉할수록 신분이 노출되어 붙잡힐 확률이 높다. 그 이유는 북한이탈자 한 사람이 붙잡히면 고문 등에 못 이겨 접촉하던 사람들을 고발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붙잡히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의 한 여성은 북한에서 비밀리에 개인적인 임무(사람을 찾아 데리고 돌아가는 것)를 받아 중국으로 나왔다고 한다. 이 여성은 자신도 모르게 얼마동안 한국인으로 가장한 고위층 북한이탈자와 함께 기거한 적이 있었는데,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틀림없이 북한 공작원이 그 사람을 잡으러 올 것이라는 생각에서 그 집에서 도망쳐 나왔다고 한다.

1) 한국돈 : 중국돈 환율은 약 1:150 정도로, 한국돈 약 30,000원 정도이다.

“(북한 공작원이 그를) 처벌을 주자고 항상 미행은 따라 다닐 것이라고 이 생각이 나더라 말입니다. 내 상태도 건너올 때 어지간한 책임을 가지고 온 상태지 하나까나 한 뭉텅이에 같이 두들겨 맞을 수 있다 말입니다. ... 내 이케 가야 되겠다고 (편지를 쓰고 나왔지요).”(#6)

3. 안전을 위해 결혼하기

북한이탈자들이 중국에 체류하는 데는 여러 가지 위협요소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줄 환경을 필요로 한다. 여성들에게 안전을 제공하는 환경은 결혼이다.

중국 내 북한이탈여성은 중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는 면이 있다. 중국의 시장경제 도입은 안전하게 직장을 갖고 있던 많은 남성들을 직장에서 퇴출시켰고, 개인적으로 시장경제에 잘 적응하는 도시의 인테리 층은 생존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계층이나 농촌의 농민들은 농사만으로 잘 살 수 없는 현실에 봉착하게 되었다. 특히 대도시의 발달과 함께 서비스업이 성행하게 되자, 서비스업에 적합한 여성들은 살기 위하여 도시로 이동하는데 기혼여성까지도 가족의 경제를 돌보기 위하여 대도시로 이동하여 가족과 떨어져 사는 경우가 많아짐으로써, 자연히 농촌에는 본의 아니게 홀아비가 된 남성이나 이혼한 남성, 혹은 결혼을 하지 못한 남성들이 증가하게 되어 결혼 성비의 불균형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중국농촌의 결혼현실에 대하여 북한이탈여성들은 편히 가 쉴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자의로, 혹은 강제로 결혼함으로써 중국사회의 결혼문제를 해소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여성들도 북한에서부터 연애를 했다는 1명의 여성을 제외하고, 모두 결혼을 원한 것은 아니지만 중국에서 편히 있을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결혼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오직 나는 일자리를 얻어서 일을 하면서, 그 다음에 남자는 차츰 천천히 보자, 그런게 이 땅에 넘어 오니깐 발을 던져 놓고 내가 편안히 가 있을 장소가 없더니깐나, 여기 와서두 내가 일하던 집에 거저 한 닷새 가 있다가, 그 다음에 여기 내 아는

집에 왔다갔다 하다가니깐, 여기 이 사람을 만나서 두 번째로 만나서 거저 여기서 이렇게 북조선 같이 북한이탈자지 하니깐 서로 리해하면서 살구, 없는데서도 마음 한가지로 보구 살자, 이렇게 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2)

편히 쉴 수 있는 안식처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이유 외에도, 북한여성이기 때문에 못 남성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혼을 하기도 한다.

“내 혼자 있으면 또 딴 남자 만나 살아야 되고, 조선 사람들은 그래요. 혼자 산다는 거는 몸 팔구 살아야 된다는 거구. 몸 팔구 사는 거면 차라리 한 사람을 정해 놓고 살아야 되겠다. 혼자 살면 자연히 남자들이 많이 끼게 되겠다 말이.”(#1)

또한 여러 번 신고되어 붙잡힌 경험이 있는 여성들은 안전한 곳에 살기 위하여 결혼한다.

“우리라는 거는 신분증이 없으니까 립시 거주라는 거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검사하니깐나 아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남편을 소개해준) 그 집에서두 속상하니까 거저 아이 되겠다구, 이제는 나그네르 하나 얻어서, 안전한 데 가 살라구. ... 어쨌든 제 살구 봐야지. 남자 좋던 나쁜던 간에 뭐 살아야지, 그저 안전한데루 그저 나는 가자!’ 그저 이거루 해서 온거지, 이기 안전하다까나.”(#9)

안전을 이유로 만나게 되는 남편은 중국에서 경제나 지식, 문화수준 등에서 부족한 사람들로써 중국여자와 결혼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결혼생활을 하면서도 생활습관차이나 성격적 결함 등으로 인해 북한이탈자 아내와 잦은 갈등을 빚는다. 본 연구의 여성들도 학력이나 문화수준 등에서 현재의 남편보다 월등하였고, 북한이탈여성들의 부지런하고 깔끔한 생활습관과 그러한 습관을 무시하는 남편 사이에서 갈등이 야기되어 불화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제 나라 땅에서 살면서 제 똑똑하구 경제적 조건이 허락되구 이러면 다 제 땅의 여자들을 연구 살지 남의 나라 땅의 여자를 연구서리 이렇게 마음 못 놓구 살려 안한단 말입니다.”(#6)

우리는 그들에게 본인보다 못한 남성과 결혼하기

로 결정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는지를 물었다. 그들은 중국이 제 나라가 아니고 그들의 신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남편의 부족한 조건들을 따져봤자 소용이 없다고 한다.

“우리 거기서(북한에서) 대학을 졸업해두 여기(중국) 와서는 쓸데 없잖아요. 내가 거기서 제일 좋은 일류대학을 졸업했다 해도 여기 와서 그게 계속 빛이 날 수 없죠. 중국에서는 우리를 받아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뭐 그런 생각(좋은 조건을 가진 남성을 찾는 것)을 하게 안되더라고요. ... 신분두 안 되구 하나까 할 수 없죠.”(#5)

4. 조선여자로 느끼는 모욕감

탈북사태가 일어난 초기에는 조선족들이 북한이탈자들에 대하여 측은한 마음에서 숙식을 제공하는 등의 도움을 주었으나 북한이탈자들이 중국에서 거짓말, 도둑질을 일삼을 뿐 아니라 싸움을 일으키는 일이 잦아지면서 그들을 고운 시선으로 보지 않고 있다. 반면 북한이탈자들은 조선족들이 그들의 처지를 불쌍하게 생각하기 보다는 못 사는 나라에서 왔다며 무시하고 여성들을 매매하는 등 하등시하기 때문에 조선족에 대하여 분노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들어 중국 조선족과 북한이탈자 사이에는 악화된 감정이 쌓여가고 있다(좋은벗들, 2000). 본 연구의 여성들도 중국에 와서 가급적 그들의 신분을 밝히지 않으려고 최대한 외모와 말씨 등을 중국인처럼 고치려 노력한다. 이러한 노력의 저변에는 신분노출의 위험성 외에도 조선여자임이 밝혀질 경우 조선족으로부터 받을 무시와 차별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우리 여기 조선여자들 거저 뭐 솔직하게 말하무 정말 값이 없단 말임다. ... 줌 이 조선족 여자들은 상이라무, 우이라무, 우리는 아래 차지한단 말임다.”(#8)

그들은 다른 사람과의 경쟁적 비교를 통해서 자존심을 세우는 경향이 강하다. 그들에게 있어서 자존심이 강하다는 것은 남에게 굽히지 않고 자신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며 자신이 옳은 것이 입증되었을 때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

러나 중국은 남의 나라일 뿐 아니라 자신의 편이 되어줄 사람이 없고 남에게 항의할 수 없는 불법체류자 신분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저 시키는 대로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일종의 머슴살이를 하는 것 같은 수치감을 느낀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조선여자’라는 신분이 상황의 옳고 그름을 떠나 주위 사람들로부터 멸시의 대상이며 책망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 그들이 주위 사람들에서 듣는 자신이 ‘조선여자’임을 자각시키는 말은 ‘저는 북조선에서 못 살다가, 거지같이 못 살다가 이렇게 온 주적살이(주제). 좋으면 좋은 줄 알아야지’, ‘조선의 개, 돼지처럼 팔려 다니는 주제에’, ‘북조선 여자들이 다 싹쓰게들(미치광이)이다’이다. 이러한 말들은 중국인 시택 안에서도 듣게 되는데, 남편과 시택식구들은 여성들의 불법신분을 약점으로 하여 신고하겠다며 으름장을 놓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자존심을 꺾기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한다.

“언제나 이것은 내 남자다. 내 신랑이다. 이런 확실한 감정이 없단 말입니다. 약간만 좋지 않은 말을 해도 기분이 상하고 여기서 사는 것 보면 조금 겁사나 심하고 또 살기가 애나고 부부간에 서로 맞지 않구 하면, 한국에 누가 탈북자를 보내주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 각시보고 ‘가라’ 한단 말입니다... 내 신랑이란 감각이 자꾸 잊어집니다. ... (남편이 나에게) ‘재미없으면 딴 여자와’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단 말입니다.”(#12)

그들은 중국이 자국이 아니고 그들의 불법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참고 지낼 수밖에 없다. 자신을 억누르며 눈치껏 살아야 하는 어려움으로 그들은 본래의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린 껍데기처럼 느껴져 속이 상한다고 한다.

“내 거저 참자, 참자 한게 어저는 5년 됐습다. 5년 되까나 저 자신도 인저는 내가 별랑게 머저리돼 보임다. 인저는 제가 XXX 라는 인간 같지 않단 말임다. 그 원래 자기 조국에 있는 XXX 아니라 완전 그 테두리 벗어나서 딴 사람, 허수아비 돼 보인단 말임다. 야- 정말 속이 탑니다.”(#8)

그들은 중국이 내 조국이 아니고 그들은 불법 신분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자신을 억누르며 눈치껏 살아야 하고 그 와중에 모멸감을 느낀다.

“내 어찌면 조선에서 태어났는가? 왜 우리 조선사람들은 이렇게 수치스러운가? 내가 왜 여기를 왔는가? 한쪽으로는 그 김정일이구 뭐구 총이 있으면 가서 한발 짝 쏘서 죽이구 싶어서. 이런 말하면 안 되겠는데. 그때 심정이가 그렇게 억울했던 말입니다.”(#4)

5. 중국생활의 의미 재발견

중국에 있는 북한이탈여성들은 북한에서의 익숙한 삶과 중국에서 새로 적응하는 삶을 끊임없이 비교한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서 그들은 중국에서의 삶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1) 왜곡된 사실에서 깨어나기

북한식 자국중심의 사상들로 세뇌된 북한주민들은 다른 여타의 정보를 교류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세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탈북 후 중국의 개혁개방 체계 속에서 혼란을 겪는다. 본 연구의 여성들도 북한에서 교육받은 것과 중국에서 경험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것이 사실인지를 몰라 혼돈되었지만 중국에서 살면서 점차 그들이 무지했음을 깨닫기 시작한다. 그들은 중국에서 돈 사용에 익숙치 않고 돈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북한에서 가족의 사회적 재생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해온 무상교육이나 무상의료정책에 대해서 더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보장정책들은 북한 경제난 동안 실제로 와해되었고, 중국에서 개인이 능력껏 일해서 돈을 버는 것을 보면서 북한의 무상정책들이 효율적인 것이 못될 뿐 아니라 오히려 개인 노력으로 더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우리 거기서(북한) 말하면, ‘너를 8년 동안 의무교육하든 돈 안내구 공부시키구, 돈 안내구 먹여주구, 이렇게 자랐는데 너희가 우리한테 ‘고맙습니다’ 해야 되겠는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하면 되겠는가.’ 우리가 지금 교육하는게 그깟다, 조선에서. 사실 말해서 지금, 그때는 몰랐지만, 여기서 생각하는 우

리 아버지가, 엄마가 그전에 일한 돈이가 한 달 나가 일하면 10원 법니다. 이 중국에 와서 일하면 몇 백원 버는데 그 몇 백원을 가지구 우리에게 의무교육을 하구. 그 돈이나 여기 와서 나가 일해서 몇 백원 벌어서 우리들 돈을 내고 학교 보내는 거나 사실은 같은 건데 그 때 우리가 모르니깐 국가에서 정치 잘해가지구 우리를 의무교육을 시킨다지마. 그때 일을 생각하면 꽤쉽하더구만. ... 우리 아버지 그렇게 일한게면 중국에 와 일하면 지금 부자가 됐을 겁니다.”(#4)

또한 본 연구의 여성들은 개혁개방 속에서 능력을 발휘하면서 세계에 대한 안목을 넓혀가는 중국인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그들의 건문이 얼마나 좁은지를 깨닫게 된다. 그들은 지금까지 자본주의 문화를 ‘돈에 타락한 세계’라는 나쁜 것으로 지탄할 뿐 그들 국가와의 문화수준차로 생각해본 적이 없는 등 많은 오해를 하며 살았음도 알게 된다.

“여기(중국) 사람들은 체육하는데서도 사람들 이름을 다 알더라구요. 미국에 누구누구이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 자기 나라에만 우월한 사람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구 살았죠. ... 여기 사람들 의식은 우리보다 많이 발달됐죠. 여기 사람들은 어디 한국이나 일본을 내다본다 할 때, 우리 북조선 사람들은 그걸 내다 못 보죠. 그 시야를 못 보니까 딱 자기 앞에 것만 보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내 자신 절루(스스로) 시야를 좀 넓혀 가지구 좀 많이 내다보자 이렇게 생각하구. 어전 한 십 몇 년동안 그렇게 그런데 적응이 안되가지구 적응하기 바쁘다구(어렵다). 집에 손님들이 왔거나 친구들이 와서 이케 이야기를 하다보든 어떤 말은 거저 앉아서 듣기만 하지만 그런 말을 정말 저럴까? 달통(이해)이 안돼가지구.”(#5)

“우리 조선에서랑 영화랑 보든 자본주의 나라에 대한 장면을 묘사해서 나오는 이런 화면들 보든, 정말 이 오색등이 막 번쩍번쩍하고 맨 감판이구, 그 무슨 영업감판들 이런게 화면에 다 나온다 말입니다. 조선은 그런기 없다 말입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야 생각하면 조선의 문화수준이 많이 떨어지다보니 거기 없었지만은 그때 우린 문화수준차로 생각할 여지가 없었다 말입니다. 단지 그저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 나라구나, 너무나도 폐악한 자본주의(라고 생각했습니다)”(#6)

2) 개혁개방에서 느끼는 자유로움

강력한 통제와 구속, 그리고 집단주의 생활방식에 익숙한 그들에게 중국의 개혁개방은 자유를 가져다 준 ‘좋은 것’이라고 한다. 그들이 의미하는 자유란, 발언의 자유, 행동의 자유, 내가 살아가기 위한 방식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집단의 결정에 따라 행동하기 보다는 개인이 스스로 결정한 것에 따라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그들이 북한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이다.

“중국을 와보니까 내가 어디 가서 무슨 행동을 하던 간에 내가 모든 걸 생각하는 그대로 완벽하게 한다는 그게 제일 마음에 들죠. ... (현재 일하는 곳에서) 내 일은 거기 가서 고기를 썰고 불을 들여간 다든가 이거죠. 그런데 사장이 그 외에 청소를 시키거나 서비스일을 하라고 하는데 그 일을 내가 할 일이 아니죠. 그럴 때 나는 엄격하게 그런 일을 하러 들어간 것이 아니고 내 할 일이 따로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임금을 더 주는 것 아니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 조선에서는 내가 할 일, 안 할 일, 상급은 어느 것을 하라고 하면 내가 하고 그렇지... 거기는 방법없이 해야 되거든요. (여기서는) 내 일이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 더 군말 없이 내가 집으로 가고 이러잖아요...”(#5)

그들은 그들에게 자유가 부여되면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감이 생기고 개인이 능력껏 돈을 벌어서 그것을 개인의 재산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삶의 동력이 된다고 한다.

“지금에 와서 이렇게 점점 깨닫게 되는 것은, 사람으로 살아가자면,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아야만 사는 값이 있구나! 그리고 또 더 살기 위해서 노력도 하게 되고, 이 조선은 보면, 모든 게 협동화, 집체화, 이렇단 말입니다. 기레니까나 내가 일 안해도 일없고, 내가 안하면 옆에 사람이, 니 조금 더 바쁘더라도 그만큼 다 하면 이만한 일을 다 끝을 내니까나 일없고, 이거 무슨, 이걸 한다 해서 내 입에 들어오는게 아니고, 내 손에 들어오는게 아니구. 한 달에 공자 땅땅 얼마씩 들어오구. 이래니까 사람이 그저 한마디로 말해서, 책임감이 적구, 발동되는 이런 심정이 적구, 그러구 뭘 위해서 내가 일하는 이 일터를 위해서 조금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면 이거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런 자각성이

없어진단 말입니다. 그저 틀에 맞춰서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하고, 그저 이랬단 말입니다. 근게 이 개방을 시켜놓고, 모든게 다 자유에다 맡겨놓고 또 개인, 개인제를 맡겨 놓으니까 요걸 내가 해야지만 어떻게 살아갈 수 있고, 또 내가 오거 하자면 힘든니까 또 어떻게 머리를 써서 할 수 있구나! 기까나 사람들의 머리, 지식수준을 부단히 발전시켜 주구, 생활수준도 부단히 높여 줄 수 있단 말입니다. 또한 상대를 누르기 위한 경쟁의식이 더 높아진단 말입니다.”(#6)

능력발휘에 있어서도 성차별이 없고 여자라도 원하면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중국생활을 통해 세상을 향한 눈이 뜨였고 자기능력을 확인해볼 기회를 가졌다고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외국일지라도 적응하며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고 자기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여자는 응당 아무리 좋은 대학을 졸업해도 저저 남편만 만나면 남편을 공대해서 집에서 저저 자식이나 키우구 남편은 공대하구 이거이 끝으로 생각하죠. 그래 가지구 대학졸업해도 내가 나라에서 그 직업을 안배(배정) 안 해주면, 안배를 설사 받았다고 해도 내가 일단 시집만 가면 가정만 이루면, 그게 다 물이 되버리죠. 그러니까 그 차이점이 많아요. 중국이라면 내가 시집 가서도 내 어디가 일하고 싶으면 일하잖아요. 조선은 그렇게 없거든요... 자기 자신을 많이 발달시켜 주는 그런 감이 들어요. 지금 힘들고 이럴 때도 있지만은 어딘가 모르게 자신을 많이 키워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외국에 와서 적응 돼서 산다할 때 ‘아- 나도 많이 성숙했구나’ 이런 감을 주죠. 조선에 있을 때는 다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그런 환경에서 살았으니까 몰랐는데 여기 오니까 나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내가 어울려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만큼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이 땅에서 발 붙이고 사는구나 라고 느끼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 것도 없잖아요. 부모, 형제, 아무 것도 없고 단지 나 혼자 여기 있으면서도 그래도 이젠 이 정도까지 내가 이웃들도 알고 친구들도 사귀고 가정을 이뤄가지고 남들이 사는 것만큼은 못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젠 틀을 잡았다는 이런 감도 들지요. ... 좌우지간 만일 내가 어딜 갔다 여길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힘도 있고 나도 낯설고 몰선 그런 땅에 와서 이만큼 적응해서 산다. 자기도 모르게 어떨 때는 기쁘지요.”(#5)

3) 먹고 사는 것만 해결할 뿐 안정감과 삶의 가치가 없는 하루살이 인생

모든 여성들이 탈북하여 중국에 사는 것에 대하여 일차적으로 먹을 것을 해결했음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먹을 것을 해결한 것만으로는 삶의 충분조건이 되지 못함을 중국생활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그들은 통일이 될 때까지 북에 있는 가족들과 연계할 가능성을 기대하며 심리적으로나마 가족에 가까이 있다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중국에 적응해 살 수 있지만, 언제 신고 되어 복송될지 모르기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고 늘 불안하다. 불안한 삶으로 하루도 편한 날이 없이 살기 때문에 그들의 매일매일의 삶은 목숨을 유지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한다.

“그저 맹목적인 생활, 항상 마음속에 긴장이, 하루 밤을 자고 나면 오늘도 무사했구나, 보냈구나. 래일 밤 자고 나면 래일 안녕하셨으니깐. 그저 이것이 그저 이 중국 땅에서 사는 북조선 사람들이 생활입니다. 크게 재미다 뭐 그런 것 없습니다. ... 우리한테 조금이나마 살아가는데서 지장이 없을 정도로 (중국정부가) 요렇게 좀 허락해준다면 우리도 능력을 발휘해서 조금씩 살아갈 방법을 찾겠는데, 지금 우리 상태는 그런 방법을 찾으려야 찾을 수 없다 말입니다. 단지 내 목숨을 유지하는 데만 정신이 집중되어 있다 말입니다.”(#6)

그들은 중국에서 신변안전의 최선책이라고 생각하여 결혼을 선택하지만, 결혼생활을 하면서도 그들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호구문제 해결에 대한 걱정은 여전하다. 특히 아이를 낳은 경우에 엄마의 호구가 없어 아이조차 호구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근심에 찼 때가 많다고 한다. 호구를 불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만만찮은 경제적 부담²⁾(한국돈 약 800,000원 이상)과 여성들의 불안정한 신분으로 인해 호구를 제대로 갖출 수 없는 형편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호구해결은 좀더 안정감을 주는 도구이긴 하지만, 호구가 전적으로 그들의 신분을 안정시킬 수 없는 불완전한 방법이다. 북한이탈자라는 신분을 아는 누군가가 신고를 하거나 신분증 검문이 강화되면 한어를 잘하고 호구를 갖고 있는 여

성도 마찬가지로 숨어 지내야 하고, 일단 공안에게 붙잡히게 되면 신분이 드러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1년 넘게 있어온 따소포(大收捕 : 불법신분자 검문기간) 기간 동안 우리가 만난 여성들은 호구유무와 관계없이 집에 숨어서 나오지 않는다든지, 갖고 다니는 핸드폰을 꺼놓고 있다든지, 혹은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산 속이나 후미진 내륙지방으로 숨어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이 그들에게 놓여 있는 불안과 가난은 중국에서의 그들의 삶에 긍지감을 주지 못하였다.

“아들이 뭐 사먹겠다무 때를 쓸 때무 그때는 정말 가슴이 아프단 말임다. 그때 같으무 정말 죽었으무, 정말 그렇습다. 조선사람 혹시 여권 갖구 친척방문 오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란데두 나는 말하는 게 그래다. 말이 중국이지 먹구 살기 일없다 뿐이지 조선보다 못하다구. 긍지감이라는데 없다구. 나는 아무 사람가두 다 그렇게 말함다.”(#7)

4) 되돌아갈 수 없는 두려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조국으로 되돌아갈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 일부 여성들은 중국에서 다른 생활을 해보니 북한에서의 극악으로 처참했던 생활로 다시 되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한다. 그들은 모두 북한으로 돌아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돈을 모으지 못했고 중국에서 결혼하여 아이까지 낳은 사실이 발각되면 사람들로 부터 받을 또 다른 수모를 겪어야만 한다. 본 연구의 여성들은 자신을 '조국을 버린 배신자, 범법자'라고 표현하며, 복송될 경우 그들은 탈북을 인정하는 도장을 찍을 수 밖에 없다고 한다. 도장을 찍음으로써 범법행위에 대한 기록을 개인과 그 가족원들의 평정서에 남기어 그들의 출세길에 지장을 주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탈여성들이 복송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이러한 기록이 남아 그들 자신과 가족들에게 피해를 입히기 때문이다.

2) 본 연구의 여성들이 거주하는 중국 지역에서는 여성 서비직 종사자의 월급수준이 인민폐 500~1,000원(한국돈 약 80,000~120,000원 정도) 미만이다.

“내 같은 거는 법인이죠. 비법으로 도망해 갖구 이렇게 와서 누기 시키는 일도 아이고 내 절로 모험해서 왔으니까나. 나는 범죄라면 범죄구, 잡아가서 나를 죽여도 나는 말 못한 이런 처지란 말임다... 그래 내 거기서 피륙 탁 돌아온게 ‘어저는 아이 되겠다. 어저는 우리 남편도 다른 아줌마를 하면은 우리 경식이(아들 가명) 앞에서 이런 어머니가 도장을 찍었다는 이런 게 없어질 것이고.’ (그래서 남편과 이혼했습니다.)”(#2)

또한 그들은 장기간 북한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정치심사를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갖고 있다. 특히 1998년 10월 이전에 탈북한 여성들은 그 당시의 김정일 주석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였고, 북한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인 정치범죄가 되어서 재입북할 수 없는 여건이 된다.

VI. 결론 및 반성적 제언

우리는 해석학적 현상학을 적용하여 중국에 살고 있는 13인의 북한이탈여성들의 생활체험을 분석하였다.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는 그들이 중국에서 ‘못 사는 나라에서 온 조선여성’이라는 정체감을 안고 사는 삶의 한계를 공감할 수 있었다. 그들은 중국생활을 통해서 마치 알에서 깨어나듯, 북한이 지상 최고의 공산주의 국가라는 왜곡됨으로부터 사실의 진위를 알게 되며 개혁개방의 자유로움을 배울 수 있었다. 반면 그들은 중국에서의 삶이 자유롭게 돈을 벌 수 없고, 신분을 위협받는 하루하루를 살면서도 탈북이라는 행위가 가져올 정치적 처단 때문에 두려워서 북한으로 되돌아가지 못하는 막막하고 불안함의 연속임을 새롭게 깨닫게 된다.

우리는 그들의 삶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삶의 다양한 의미가 개인과 사회체계 간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형성됨을 배울 수 있었다. 따라서 우리는 중국에 살고 있는 북한이탈여성들의 삶의 현실을 통해서 우리의 무관심을 반성해봄으로써 다음의 몇가지 제언을 해본다.

첫째, 중국 내 북한이탈여성들에 대한 연구는 실태조사연구에 국한되고 있는데, 그들의 탈북현상은

북한사회구조의 변화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지속될 것이고 그 변화와 개선의 여지는 희미한 상태이므로 지속적인 연구의 관심이 필요하다.

둘째, 북한이탈여성의 삶의 현상은 더 이상 그들만의 문제가 아닌, 그들을 둘러싼 주변국들과 국제사회에서 보호해야만 하는 국제사회문제이다. 지금까지 그들 문제는 정치 이슈화되어 난관을 겪어왔지만, 보다 인도적 차원에서 그들의 기초인권을 보장해줄 방법들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북한이탈여성들이 희망하는 것은 금지감 있는 안전한 삶을 보장하는 것으로, 중국사회에서 조선여자라는 모욕감을 느끼지 않도록 합법적인 지위를 부여받고 자유롭게 생계를 꾸릴 수 있는 활동을 허가받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뿐 아니라 통일과정을 이뤄 가는데 직면할 수 있는 서로 다름에 의한 차이들을 최소화하는 실리적 측면에서도 한국 정부는 그들의 신분을 보장할 만한 법적지위를 제공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셋째, 난민지위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관건은 중국의 기본입장의 변화이다. 따라서 중국이 북한이탈여성에 대하여 최소한 강경책을 행사하지 않게끔 중국과의 외교교섭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뿐 아니라,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이탈여성들에 대한 태도변화를 위한 명분을 만드는 외교적 전략이 필요하다. 전략적 차원에서 북한이탈여성 문제를 국제여론화 하는 움직임이 중요하므로 국내외 여성단체들이 국제기구와 연계활동화 하는 것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넷째, 난민지위를 확보하기 까지 펼쳐야 할 북한이탈여성들에 대한 보호지원책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NGO나 민간종교단체를 중심으로 펼쳐온 은신처 제공 및 생활지원은 그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일시적인 것들로 미흡한 부분이 많다. 따라서 정부와 민간의 협력 하에 북한이탈여성을 도울 수 있는 공식적, 비공식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하여 정부 산하에 중국의 북한이탈여성들을 돕는 민간단체들을 연합하는 전담팀을 구성하는 제도적 보완을 제안하는 바이다. 이미 민간단체들은 각종 활동을 통하여 북한

이탈자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 효율적인 지원활동 방안이 무엇인지를 경험을 통하여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합할 때 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탈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지원책과 정책들이 계속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 정부는 북한주민에 대한 식량지원을 중단해서는 안되며,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북한 탈북이 국외체류를 거쳐 국내입국으로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현실에 따른 인구압박이나 사회경제적 비용을 감안하여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탈북방지책을 실현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여섯째, 기존 통일교육프로그램이나 통일정책들은 국외 북한이탈자의 실태에 대한 내용이 미흡한데, 이를 보완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인 통일내용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보다 근본적으로 정부의 통일정책과 사회통합정책들이 장기적인 시각에서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그리고 의지를 갖고 추진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이러한 일환으로 재중 북한이탈자에 대한 연구의 어려움들을 경험하면서 재중 북한이탈자들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위한 정부차원에서의 안전 기반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

■ 참고문헌

- 강정구(1990). 연구방법론: 우리의 반쪽인 북한 사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해야 할까?. 북한의 사회, 11-37, 서울: 을유문화사.
- 곽해룡(2000). 중국에 있는 북한이탈주민 인권실태에 관한 연구: 신이산가족 현상의 발생을 중심으로. 통일문제 연구, 12(1), 247-267.
- 김영수(2000). 북한이탈주민의 가족문제,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 9, 102-117.
- 김태천(2002). 대량 난민사태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 <http://www.humanrights.or.kr>.
- 노치영(2002). 생존전략으로써의 탈북과 가족해체 경험 -북한여성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인간생활환경연구소 논집, 1, 95-118.
- 문숙재, 김지희(1999). 북한 여성들의 탈북동기와 생활실태 - 중국 연변지역의 탈북 여성들을 중심으로 -. 아시아재단 보고서.
- 박철학(2001). 자유북한인/가족의 사회부적응 실태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현선(1999). 현대 북한의 가족제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 논문.
- 백옥인(1990). 북한의 일상생활. 북한의 사회, 171-195, 서울: 을유문화사.
- 윤여상(2001). 최근 재외 탈북자 현황과 새로운 변화. 통일한국, 8, 13-17.
- 윤여상(1998). 재외 탈북자 실태와 지원체계. 통일연구논총, 7(2), 169-201.
- 윤인진(2000). 탈북자와 남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까?-탈북자의 성공적인 사회적응을 위한 방안. 한국사회문화연구원 공개토론회 남북한 사람들이 하나 되는 길. 서울 프레스 센터.
- 윤인진(1999). 통일을 대비한 북한 이탈동포 대책. 북한이탈동포 대책 공청회 발표 자료.
- 이신화(1997). 환경난민이란 무엇인가?: 대량탈북 위기에의 조기경보, 한국 국제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 발표논문.
- 이영선, 전우택(1997). 탈북자의 삶-문제와 대책. 서울: 도서출판 오름.
- 이은죽, 장지연(1999). 여성, 가족, 사회. 서울: 세영사.
- 이우영(2000). 북한이탈주민 문제의 종합적 정책방안 연구. 통일 연구원.
- 장혜경, 김영란(2000). 북한이탈주민 가족의 가족안정성 및 사회적응과 여성의 역할.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 전우택(2000). 사람의 통일을 향하여 - 이질화된 남북한 사람들의 심리적 통합을 위한 사회정신학적 고찰. 서울: 도서출판 오름.
- 정성임(2000). 북한의 여성정책과 여성인식 구조. 통일연구, 4(2), 177-205.
- 조서영(1999). 재외(在外) 북한이탈주민 인권보장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좋은 벗들(2001). 북한주민의 북한사회인식 조사.

- www.jungto.org.
- 좋은 벗들(2000). 2000년 8월의 조선-중국 국경지역 난민보고서. www.jungto.org.
- 좋은 벗들(1999). 99년 3월 국경지역 난민보고서. www.jungto.org.
- 통일부(2001). 가정생활과 여성의 지위. www.unikorea.net.
- 한겨레21(1997). 유린당하는 탈북 여성들.
- 홍순호, 박준영, 함인희(1999). 북한인식과 한반도. 서울: 살림.
- Van Manen (1997). *Researching Lived Experience: Human Science for an Action Sensitive Pedagogy*, NY: SUNY Press.
- USCR (2001). *Worldwide Refugee Information*, www.refugees.org.
-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1997). *North Korea's Declin and China's Strategic Dilemmas*, www.usip.org.
- Yoon, I. (2000). North Korean Diaspora: North Korean Defectors Abroad and in South Korea, *Development and Society*, 30(1), 1-26.
- (2003년 4월 25일 접수, 2003년 7월 5일 채택)